

콩나물과 식품공해

**벼도, 아채도, 과일도 우리가 먹는 농산식품들 중에
농약과 관계가 없는것이 하나도 없다.
우리들의 식탁에는 식사와 농약이 함께하고 있다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유일하게 콩나물만이 농약공해로서 벗어날 수
있는 가장 깨끗한 무공해 식품으로서……**

1. 언론이 콩나물을 독극물로 만든다.

콩 나물에 대하여 일반 사람들이 과연 얼마나 알고 있을까?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가장 흔하게 사용할 수 있고 영양가치면에서도 가장 훌륭한 식품인 것은 누구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것이 어떻게 길러지고 어떻게 유통되며, 판매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 실체의 속사정을 알고 있는사람은 그렇게 많은것 같지는 않다.

콩나물의 문제가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킬때마다 지탄의 큰소리와 질타의 몽둥이질만을 서슴없이 휘둘러 댈줄만 아는 사람들도 콩나물이 무엇인지를 알고나 하는 것인지? 또 그렇게 밖에 할줄모르는 당국이나 언론이나 소비자 단체들의 처사가 과연 책임있는 현명한 것인지?

콩나물이 사건화 될때마다 매스컴은 지나치게 흥분하여, 있는대로 총동원되어 콩나물 자체를 마치 독극물이나 되는것처럼 만들어 버린다. 그리하여 사람들에게 콩나물만 먹으면 금방이라도 신경장해를 일으키고 시력장해를 일으키며 기형아를 낳는것처럼 인식을 시켜버린다. 그리고 콩나물을 재배 하는 사람들은 몽땅 다 악덕업자를 만들어 버리고, 언찌

면 콩나물의 원조인 이나라에서 아예 콩나물의 씨를 말려버릴것 같은 기세이다.

2.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산물이 무엇이 있을까?

그 러면서도 사람들은 밥을 먹는다. 종자에 싹을 틔울때부터 싹이되어 나오기 까지, 수십번 농약을 쳐서 병충해를 물리치고 얻어낸 쌀로 지어낸 밥이다. 그리고 농약을 쳐서 길러낸 배추김치, 상추, 오이, 시금치, 이런것들을 아무런 거리낌없이 먹는다. 콩나물 에서는 단 1회피엠의 농약이 잔류되어도 신경장해, 시력장해, 기형아출산등, 무지무지한 피해가 있으나, 다른 농산물에서는 설령 농약의 성분이 잔류되어 있다라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기 때문이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다.

그러나 신기한것은 콩나물을 먹는 사람도 쌀밥을 먹는 사람도 농약을 쳐서 만든 딸기를 먹은 사람도 농약때문에 뭐가 이상해 졌다는 말은 아직 신문에 도 방송에도 나와본적이 없다. 농약을 방제하다가 중독이 되었다든지 또는 수질이 오염되어 괴질이

발생 되었다든지,
그런 소리는 가끔
씩 있어도 아직
까지는 우리의
식탁에서 농약의
문제가 그리 심각
하지는 않은 모양
이다.



3. 콩나물은 과연 독극물인가?

사 람들이 일반적으로 콩나물을 기를때 농약을 풀
어놓은 물을 마치 할머니들이 바가지로 물을 주
듯이 매일같이 콩나물에 퍼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것
같다. 그리하여 통씨앗을 물에 담글때 부터 콩나물
로 다 자라서 시장에 출하될 때까지 농약으로 키워
서 아주 농약덩어리가 되어버린 것으로 생각 하고
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자기들은 따로 길러 먹는다
고 까지 생각하고 있는것 같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보통 큰일이 아니다. 그
게 사실이라면 그런 죽일놈들이 어디 있겠는가?
식품위생법의 위반이나 농약관리법의 위반이나 그
런것은 따질 필요도 없다. 법 이전에 인간적인 문
제인 것이다.

그러나 이것이 엄청난 오해로써 콩나물을 잘 모
르고 있는 문제점이다. 콩나물의 실체를 모르기 때
문에 사건도 되고 매스컴도 흥분하게 되는 것이다.

4. 콩나물은 어떻게 길러지는가?

콩 나물은 말 그대로 콩에 싹을내어 먹는 나물이
다. 이것을 문자로 쓰면 豆菜가 된다. 콩으로 만
든 채소라는 뜻이다. 따라서 콩나물도 농산물이 된
다. 배추나 상추나 시금치처럼 싹을 틔우고 길러서
먹는 엽채류에 속한다. 이것이 좀 다른것이 있다면
다른 채소는 토양에다 길러서 스스로 영양분을 만
든 잎을 먹는 것이다. 콩나물은 시설물에 의하여
싹을 틔우고 수경재배로 길러서 먹는것이 특성이다.

또한가지 다른것이 있다면 자연의 조건에서 넓게
재배하는것이 아니고 인위적 조건에서 밀집된 상태
로 발아과정으로 성장이 끝나기 때문에 발아에 알
맞은 온도를 유지하며 자식 키우는 이상의 정성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것이다. 조금만 불순물이 들어
가거나 수질에 이상이 있어도 연약한 콩나물은 건
실하게 자라지를 못한다. 때문에 콩나물 업자들이
콩나물 재배업으로써 성공할 수 있는 첫째 조건이

절대로 오염되지 아니한 지하수를 풍부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맑은 지하수를 확보할 수 있는지에 달려있다. 서울에만 500여 재배업소가 있으나 대체로 밀집되어 있는 이유는 깨끗한 수질과 풍부한 수량이 있는 곳을 찾아서 몰려들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재배업소 근처에 공장이 들어서거나 대형 건물이 들어서면 영락없이 그 자리에서 재배업을 포기하고 교외로 옮긴다. 깨끗하고 풍부한 샘물을 찾아서 거러쳐가 멀어 운송에 어려움이 있더라도 옮길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콩나물을 기르는 최상의 기술은 발아온도를 잘맞추어 주고 깨끗한 물을 풍부하게 시간을 맞추어 주는 것이 전부다. 할머니들이 바가지로 물을 주는 것은 한동이만을 기를 때 가능한 것이지만 많은 양을 한꺼번에 기를 때에는 양수기로 물을 뽑아 굵은 호스로 충분히 주어야만 한다. 그래도 하루 일과중 물 주는 시간이 5~6시간을 차지한다. 만약에 농약을 물에 타서 바가지로 뿌려주어야만 콩나물을 기를 수 있다면 그 노력과 인건비를 무엇으로 감당할 수가 있단 말인가? 그렇다고 지하 30m(100자)에 있는 지하수에 농약을 넣을 수도 없는 일이 아닌가?

5. 농사와 농약의 함수관계

토양에 씨를 뿌리거나 시설물에 씨를 얹어도 첫째 조건이 싹이 잘터야 한다. 그리고 자연의 조건에서나 시설의 조건에서도 병들지 않고 상하지 않아야 한다. 이제 농사도 자급자족의 수단이 아니고 상업성이기 때문에 썩거나 죽어서 없어지지도 않아야 되겠지만 상품으로써의 가치도 있어야 한다.

그래서 농업의 발달은 농약의 발달이 있어야 하며,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농약을 만들기 위하여 전세계가 심혈을 쏟고 있다. 농업의 발달이 있어야 사람의 근본문제 즉 먹고사는 것을 해결할 수가 있기 때문이다. 농산물이 재배중에 병충해로부터 피해를 받아 썩거나 죽어간다면 반드시 방제를 하는 것이 상식이다. 콩나물도 농산물이기 때문에 재배

중에 병원균에 감염되면 썩기도 하고 죽기도 한다. 인체에 해롭지 않은 범위내에서 농약의 안전사용의 기준을 설정하고 최소한의 종자소독 정도를 할 수 있도록 정부차원의 연구가 있어야 할 것이다.

6. 공해, 무엇이 문제인가?

우리는 지금 고도로 발달된 산업문명 시대에 살고 있다. 그리고 최고로 발달되어 있는 문명생활의 혜택을 누린다. 그래서 우리는 그 문명이 배출해내고 있는 각종 공해의 피해도 감수해야만 한다. 사실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다.

갓쓰고 도포자락 휘날리던 우리의 선조들은 산업문명의 혜택을 누리지는 못했지만 공해라는 문제는 알지도 못했을 것이다. 그저 자연에서 와서 자연속에서 살다가 자연으로 갔을 뿐이다.

이 말을 한 철학자 「루소」도 그러한 시대의 사람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 자연마저도 서서히 시들어가고 있다. 각종 공해로 오염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더 늦기전에 자연을 보호하려는 움직임이 활발하고 각종 공해 대책의 안전장치를 마련하는데 힘을 쏟고 있으며, 근본적으로 공해에 안전할 수 있는 새로운 문명의 연구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다.

그러나 문명의 산업사회에서 공해는 필요악이다. 이것을 지나치게 심각하다고 느끼고 있는 사람들은 자기만이 공해로부터 피해를 받지 않으려고 애를 쓴다. 그러한 사람들을 위하여 무공해라는 이름을 붙인 상품이 등장하고 짹짹하게 재미를 보고 있다. 그러나 과연 어느정도가 무공해라고 해야 할 것인가? 아직 그 뚜렷한 기준은 없다.

무공해 농산물이라면 우선 비료를 주지 않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고 길러낸 농산물을 말한다. 그러나 비료를 주지 않고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해서 무공해 농산물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첫째 토질이 오염되지 않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야 하며 오염되지 않은 관개수로만 물을 주어야 한다. 그리고

그 식물이 숨을 쉬는 공기가 절대로 오염되어서는 안된다. 그래야만 진짜 무공해 농산물이라고 할 수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한번 더 생각을 하여보면 그것만으로도 안심을 할수가 없다.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이 오염이 되지 않았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믿을수가 없다. 요즘에는 산성비도 내린다고 하지 않는가? 그렇다면 무엇을 먹을 수 있단말인가? 깊이 따지고 보면 먹을수 있는것이 하나도 없다. 먹을 수 있는것은 고사하고 숨도 마음 놓고 쉬지못할 판이다. 공기중에 무엇이 오염되어 있는지도 모르는데 어떻게 안심하고 숨을 쉴수가 있단말인가? 따지고 볼수록 정말로 심각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각종 공해를 줄일 수 있는 노력도 있어야 하며, 자연보호도 적극적으로 전개하여야 한다. 그리고 안전사용의 기준을 준수하는 선에서 농약도 사용하여야 한다.

산업을 발전시킨 인간은 그로부터 야기되는 공해를 줄일 수도 있는 지혜가 있으며 그 환경에 적응하여 살아갈 수 있는 신체적 능력도 있다. 그러나 문제는 그러한 노력은 게을리 하면서 그것을 피하려고만 하는데 있다.

7. 콩나물만이 가장 안심하고 먹을수 있는 농산물이다.

앞에서 말한바와 같이 절대적인 무공해 농산물을 생산하기는 어렵다. 아무리 비료도 농약도 사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미 토질이나 수질이 오염되어 있어서도 안되고 공기가 오염되어 있어서도 안된다.

그것을 피하기 위하여 산간오지에 농사를 지어도 하늘에서 떨어지는 빗물의 오염 여부를 측정하여 보았는가? 그러나 콩나물을 재배하는 데에는 토양의 오염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용기를 사용하여 재배하기 때문이며, 용기를 조금만 잘못 씻어도 상하기 때문에 깨끗이 씻어야 되기 때문이다.



또한 수질이 조금만 이상이 있어도 콩나물을 재배할 수가 없다. 앞에서도 말한바와 같이 깨끗하고 풍부한 양질의 지하수를 확보할 수 있느냐에 따라서 콩나물 재배업으로 성공할 수 있느냐 판가름이 날만큼 콩나물을 재배하는데에는 수질이 중요하다. 또한 밀집되어 있는 상태로 길러지기 때문에공기와 접할 수 있는 부분이 적고잡기 때문에 공기의 오염 또한 문제가 될것이 없다. 근본적으로 자연의 공해와는 거리가 멀다.

오늘날에는 이러한 자연의 공해를 피하기 위하여 수경재배가 발달이 되어가고 있으며 여러 종류의 채소류가 선호를 받고 있다.

일찌기 우리의 조상들은 이미 수경재배의 지혜를 터득하였으니 콩나물의 진가가 돋보인다.

그러나 문제는 일부에서 잔류되고 있는 농약성분이 있으나 그도 문제가 될것은 없다. 사실 우리나라에서 재배되고 있는 채소류를 총 집합하여 농약의 잔류량을 검사하여 보면 그 결과가 어떨까?

어쩌면 그 결과는 우리의 식생활을 공포로 몰아넣을런지도 모른다. 그리고 콩나물만 먹고 살아야 된다는 결론이 나올지도 모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콩나물만이 농약이 잔류되어 있는것처럼 인식하고 있는것은 무엇때문인가?

분명 무엇인가 크게 잘못되어 있는것 같다. 콩나물의 재배가 특수한 수경재배이기 때문에 식품을 제조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고있는 모양이다.

그래서 매스컴들이 콩나물을 여론재판에 회부하였는지도 모른다. 분명 콩나물의 운명에 비극이 아닐 수 없다. ■